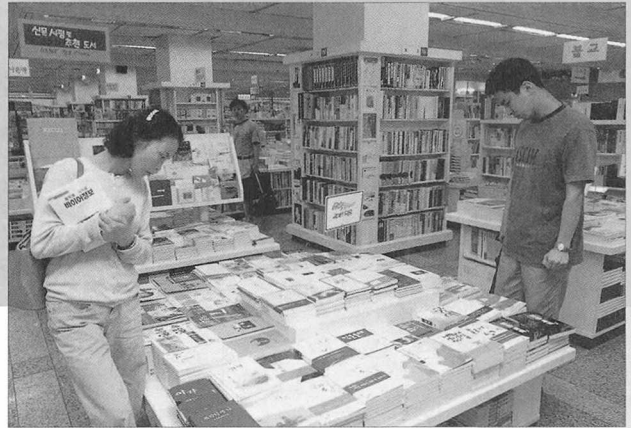


## 대중소설은 상한가, 본격문학은 바닥세

서점과 출판사를 통해 본 문학출판의 실태...

본격문학은 서점가에서 약세 면치 못해

문학출판이 예전같지 않다는 게 출판·서점 관계자들의 일차적인 견해다. 하지만 문학출판의 위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IMF를 계기로 큰 폭으로 줄었던 대형서점의 문예물 매출고는 늘고 있으나 이것은 대형 베스트셀러에 힘입은 것이다. 서점에서 본격문학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IMF를 맞아 격감했던 대형서점의 문학매출은 회복세에 들어섰다. 하지만 문학출판사들의 판매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문학코너.

책 하면 으레 소설책을 연상할 정도로 출판에서 문학의 지위는 확고했다. 하지만 출간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이제 문학의 시장 점유율은 4%에 불과하고, 비중은 7순위로 내려앉았다는 관측이 있을 정도다. 문학의 몰락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찾기 어렵다. 그래도 서점의 매출 현황과 출판사의 체감 지수를 통해 문학출판이 놓인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 대형서점의 소설 구매력은 회복세

IMF를 맞아 격감했던 대형서점의 문학 판매실적은 차츰 나아지는 추세다. 교보문고의 지난 3년간 7월의 판매동향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1998년 전년대비 -13.3%를 기록한 소설의 판매 성장률은 99년 8.6%로 회복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20%나 판매가 늘었다. 특히 7월 다섯째주 베스트셀러 종합집계에는 10위권에 7종의 소설이 진입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문학수첩), 《가시고기》(밝은세상), 《상실의 시대》(문학사상사), 《코리아 닷컴》(해냄), 《울인》(들녘) 등이 베스트셀러 종합목록의 상위권을 점했다.

홍보과 위성계 대리는 "소설의 약진을 문학의 권토중래로 보기는 어렵다. 《해리포터》 시리즈와 《가시고기》가 주도한 측면이 강해서다. 본격·순수문학은 독서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로서적의 문학 매출 역시 교보문고와 비슷한 점유율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홍보팀 정광화 대리는 문예물의 위축과 관련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문학 분야는 한달에 300~400종이 입고된다. 이들 중 예전에는 매장에 두세달 가량 전시되는 책들이 꽤 많았지만 요즘은 한두 주도 못 버티고 반품되는 책이 태반이다. 특히, 순수문학 출판사의 매출은 크게 줄었다."

부산의 영광도서에는 본격문학이 아직 건재한 편이다. 문학부

김교섭 과장은 "상위 1, 2위는 서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 아래쪽은 문학성 있는 책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오래된 정원》(창작과비평사), 《아라리난장》(문이당),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 왔다》(문학동네) 등이 부산 독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경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 순문학 매출은 크게 줄어

지방의 작은 서점은 전반적인 매출 감소와 더불어 문학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천교대 앞 열린글사랑의 황명환 대표는 "2~3년 전만 해도 대중소설을 중심으로 한 문예물이 매출의 30%를 차지했다. 지금은 10% 안쪽으로 줄었다"고 말한다. 작은 서점의 침체는 대여점과 인터넷서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문학관련 '페이지 뷰'(조회수) 통계는 외형상으로는 문학출판사의 건재를 확인시켜 준다. 출판사별 페이지 뷰 순위에서 창작과비평사와 민음사가 4위와 5위를 차지했고, 문학동네와 문학과지성사는 18위와 21위다. 참고로 1위부터 3위는 비룡소, 문학수첩, 김영사 순이다. 알라딘의 출판사 조회수 통계는 상위 10위권 문학출판사들이 모두 종합출판사로서 어린이책과 일반 교양물 및 학술서도 펴낸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알라딘은 어린이책의 비중이 가장 높다. 어린이책의 페이지 뷰를 100으로 봤을 때 문학은 40으로, 70인 컴퓨터에 이어 세번째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대중문학을 포함한 수치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문학 전문출판사들은 대형서점에서 회복된 구매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창작과비평사는 화제작 《오래된 정원(전2권)》을 출간하며 10만질 판매를 목표로 잡았다. 황석영씨가 오랜만에 펴낸 작품이라 내심 15만질도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판매부수는 6만질을 조금 넘는다.

### 《오래된 정원》을 보는 것같은 시각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목표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하지만 투입 요소에 비하면 산출량이 적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오래된 정원》이 받은 사회적 관심은 실로 엄청났다. 신간이 텔레비전의 밤 9시 뉴스에 등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물론 요즘 세태를 감안해 6만질이면 대단하다는 반응도 있다.

《오래된 정원》의 판매현황을 보는 상이한 시각은 반 컵의 물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과 닮았다. '물이 반밖에 없네'와 '물이 반씩이나 있네'.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가운데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은 그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창작과비평사의 올해 자체 판매 순위에서 《오래된 정원》을 바짝 뒤쫓는 책의 존재는 어느 정도 판단의 근거가 된다. 90년대 초반의 밀리언 셀러였던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은 드라마 《허준》의 간접광고 덕분에 올해 벌써 3만질 10만여권이 팔렸다.

“문학출판은 최악의 상황이다. 예정된 수순인 것으로 보이나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게 위축돼 무척 당혹스럽다. 10만부 이상 판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인건비나

광고비의 지출은 큰 부담이 된다. 작은 규모의 출판을 통해 문학출판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사 이경호 주간의 말이다.

이인화·장태일·김연수 등의 소설가를 배출한 '작가세계 문학상'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연거푸 당선작을 내지 못했다. 마땅한 작품이 없어서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작품공모도 하지 않았다. 대신, 색깔 있는 시인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시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1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100권을 돌파한 <세계사시인선> 세트 판매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100권 한 세트를 30만원씩 333질 판다는 복안이다.

<세계사시인선>은 100권 돌파를 기해 새 단장을 했다. 표지 장정을 새롭게 꾸몄다. 눈에 띄는 변화는 또 있다. 101번부터는 책값을 일반적인 시집 가격보다 500원 비싼 5500원으로 책정했다. 가격 인상에는 생전 시집을 안 찾은 독자에게 읽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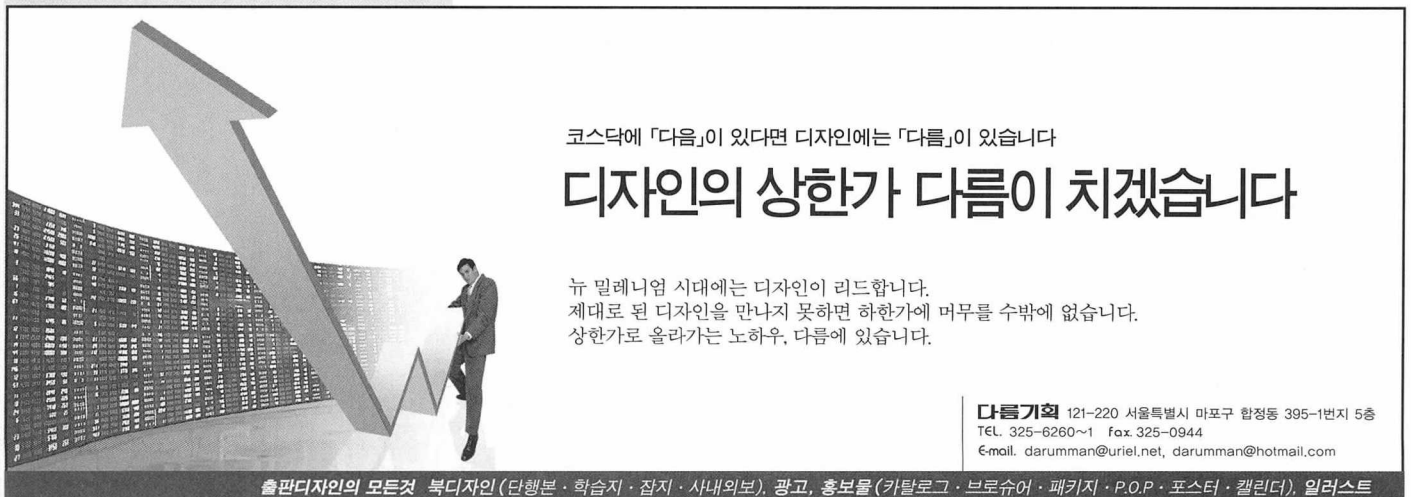
### 소설만 낸다면 출판사 문 닫아야 할 판

문학과지성사는 근년에도 황지우의 《어느날 나는 호린 酒店에 앉아 있을 거다》와 신경숙의 《기차는 7시에 떠나네》《딸기밭》 등이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잘 팔린 책들의 기세는 예전 같지 않다.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부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하더니 IMF의 와중에 크게 감소했다. 잘 나가는 책들이 이러니 안 팔리는 책들의 사정은 불문가지. <문학과지성 시인선>의 평균 판매량은 한창 때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시집과 소설의 출간 종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팔리지 않을 물건은 만들지 않는 것이 시장 논리다. 그러나 영리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출판은 다른 사업과 다르다. 두 요소를 적절하게 조절해 좋은 책, 필요한 책을 꾸준히 내면서 문학과지성사가 25년간 쌓은 이미지를 계속 이을 것이다.” 채호기 대표의 말이다.

문학동네는 올해 소설 출판에서 일희일비가 있었다. 이문구의 소설집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 왔다》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줬다. 초판 5천부가 금세 동나서 2쇄와 3쇄를 3천부씩 더 찍었다. 반면 제5회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 《숲의 왕》은 기대박이었다. 정홍수 편집장은 “문학동네의 문학 이외의 출판활동은 문학을 위한 토대 구축작업”이라며 “소설만 펴낸다면 출판사 간판을 내려야 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 최성일 기자



코스닥에 「다음」이 있다면 디자인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 디자인의 상한가 다름이 치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에는 디자인이 리드합니다. 제대로 된 디자인을 만나지 못하면 하한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가로 올라가는 노하우, 다름에 있습니다.

**다름기획** 121-2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95-1번지 5층  
TEL 325-6260~1 fax 325-0944  
E-mail. darumman@uriel.net, darumman@hotmail.com

출판디자인의 모든것 북디자인(단행본·학습지·잡지·사내외보), 광고, 홍보물(카탈로그·브로슈어·패키지·P.O.P·포스터·캘린더), 일러스트